



[앞부분 줄거리] 유간이 난을 일으키자 장 처사는 그에게 잡혀가 대장이 되고, 장 처사의 부인은 피난 중 아들 장경을 잃어버린다. 유간의 난이 진압되자 유간은 처형당하고 그의 부하들은 벌을 받는다.

처사가 또한 절도에 정속(定屬)*한 바가 되어,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여 죽고자 하다가, 부인과 아들을 생각하고 사람을 얻어 설학동에 보내어 소식을 통하였더니, 돌아와 대답하기를,

“설학동에 사람은커녕 그곳이 다 쑥밭이 되었나이다.”

하거늘, 처사가 듣기를 마치고 대성통곡하다가 기절하니 그 동관이 위로하여 세월을 보내더라.

이때 장경이 모친을 잃고 전전걸식(轉轉乞食)하여 ㉠ 운주성에 이르니 광음이 홀홀하여 나이 십삼 세 된지라. 운주 관노 차영이 장경을 보고 묻기를,

“너를 보매 상인(常人)의 자식이 아닌가 싶으니, 성명은 무엇이며 거주(居住)는 어디뇨?”

장경 이르기를,

“나는 여남 북촌에서 살던 장경이로다.”

차영이 말하기를,

“나도 너 같은 자식이 있으므로, 너를 보매 가궁한지라. 내 집에 있어 사환(使喚)*함이 어떠하뇨?”

장경이 가장 기뻐하거늘, 차영이 데려가 사환을 시키니 이 사람은 본시 부유하므로, 장경을 달래서 제 자식의 방자 구실을 바꾸려 하여, 상하에 인정을 후히 쓰고 상환(相換)*하니, 장경이 그날부터 관가 구실과 잡역을 잘 거행하니 관속이 다 기특히 여기나, 차영이 무상하여 머리도 아니 빗기고 옷도 변변히 입히지 아니 하니 그 형용이 심히 더러우매 동료 방자 등의 구박이 심하더라.

일일은 장경이 부모와 신세를 생각하며, 옷을 벗어 이를 잡더니 옷깃 속에 비단 주머니 있거늘 떼어본즉, ‘여남 북촌 설학동 장취의 아들 장경이 기사 십이월 이십 육일 해시 생이라.’ 하였으니, 부친의 필적인 줄 알고 즉시 옥지환과 한데 싸서 감추니라.

(중략)

이때에 원수가 회군하여 ㉡ 황하에 이르러 사오일을 쉬더니, 일일은 절도사 신담이 원수를 모셔 한담하다가, 그 옥모(玉貌) 선풍(仙風)을 사랑하여 묻기를,

“원수는 어디서 사시며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나이까?”

원수가 문득 낙루(落淚)하며 이르기를,

“학생이 팔자가 기구하여, 일찍 부모를 잃고 동서유리(東西流離)하다가 천을 입어 지체가 높아졌으나, 부모 생사를 모르오니 천지간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누수를 금치 못하거늘, 절도사 또한 감동하며 이 말을 함을 뉘우쳐 하더니, 이때 장 처사가 관노가 되었으므로 절도사를 좇아 이곳에 왔다가 이 말을 들으매, 분명 장경 같으되 어려서 잃었으므로 얼굴을 확실히 알 수 없고 위풍이 늙름하니,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다만 눈물만 흘리다가 절도사가 나오기를 기다려 조용히 물어 가로되,

[A] “상공과 원수의 수작하심을 들은즉, 소인의 잃은 자식 같사오되 당돌히 입을 열지 못하였거니와, 소인은 본디 공렬(功烈) 후(侯)* 장진의 후예로 여남 북촌 설학동에서 사육고, 글을 좋아하기로 남이 처사라 일컫는 바이라. 늦게야 아들을 낳으매 도사가 보고 여차 여차 이르는 고로, ‘여남 북촌 설학동 처사 장취의 아들 경의 나이 기사 십이월 이십육일 해시 생이라.’ 라고 써 옷깃 속에 넣었더니, 유간의 난에 피난하였다가 처자를 다 잃고 도적에게 잡혀 마침내 본주 관노가 되었사오니이다. 바라건대 상공은 소인을 위하여 명일 탐지하여 보소서.”

하거늘 절도사가 듣기를 마치고 일변 괴이 여기며, 일변 기가 막혀 아직 물러나 있으라 하더라.

날이 저물매 원수가 부모와의 이별을 생각하여 슬픔을 금치 못하여 야심토록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문득 한 노승이 육환장을 짊고 장대의 올라 장읍(長揖)*하고 이르기를,

“원수가 이제 몸이 귀히 되었으나 어찌 부모를 생각하지 아니하는고?”

원수가 황망히 일어 맞으며 말하기를,

“존사는 나의 부모 계신 곳을 가르쳐 주시면 결초보은(結草報恩)하리이다.”

노승이 웃으며,

“지성이면 감천하나니 이 성중에서 부친을 만날 것이요, 버금 대부인을 뵈오려니와 만일 그렇지 아니면 부모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문득 간데없거늘, 정신이 산란하여 밝기를 기다려 절도사를 청하여 몽사(夢事)를 일러 말하기를,

“절도사는 나를 위하여 나의 부친을 방문하여 주소서.”

신담 이르기를,

“몽사가 여차하니 금일 경사가 있으리라.”
 하고 또 묻기를,
 “원수가 여남 북촌 설학동에서 사시나이까?”
 원수 이르기를,
 “그러하이다.”
 신담 이르기를,
 “어려서 고향을 떠났으면 어찌 지명을 아시나이까?”
 원수가 처량히 말하기를,
 “장성 후 부친 유서를 보고 아나이다.”
 절도가 이르기를,
 “그러하면 그 유서에 여차여차히 써 있더나이까?”
 원수가 대경하여 말하기를,
 “어찌 우리 유서 사연을 아시나이까? 빨리 가르치소서.”
 절도사가 그제야 장처사의 전후사연을 고하고 즉시 처사를 청하니, 처사 마침 대하(臺下)에 있어 말을 듣다가 또 청함을 보고 심신이 황홀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치 못할 즈음에 원수가 대하에 내달아 엎드려 유서와 모친의 옥지환을 드리며 방성대곡하기를, 처사가 또한 울다가 원수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네 군중의 오래 근로하였으니 슬픈 마음을 억제하여, 노부의 심회를 위로하라.”
 할새, 새 절도사와 제장 등이 부자가 상봉함을 치하함이 분분한지라.

— 작자 미상, 「장경전」 —

- * 정속 : 죄인을 종으로 삼던 일
- * 사환 : 관청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 * 상환 : 서로 맞바꿈
- * 후 : 중국 고대 제후나 귀족의 오 등장의 둘째 작위
- * 장읍 : 두 손을 마주 잡아 눈높이만큼 들어서 허리를 굽히는 예

01 절도사 신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수가 장취의 아들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를 떠본다.
- ② 원수를 연민하여 그가 잃어버린 부모의 행방을 수소문한다.
- ③ 원수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관노에게 그의 집안 내력을 묻는다.
- ④ 원수가 꿈의 의미를 해석하며 매사에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 ⑤ 원수에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슬픈 마음을 억제하라고 부탁한다.

02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 ② 대화 상대에게 특정한 일을 요청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 ③ 추측의 진술을 활용하여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 ④ 대화 상대에게 자신의 원래 출신을 언급하며 정체를 밝히고 있다.
- 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03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읽글을 이해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 영웅의 일생을 보여 주는 소설에서 대개 주인공의 가문은 정적(政敵)과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몰락하고, 가족들은 서로 이별하는 수난을 겪습니다. 주인공은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 조력자에게 구출 후 양육되고, 입신양명하여 가족과 재회합니다. 이때 주인공과 가족을 매개하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주인공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증표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 영웅 소설과 「장경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 1 : 장경이 원수가 되어 절도사의 관노가 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입신양명하여 이별한 가족과 재회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학생 2 : 장경이 장 처사에게 유서와 모친의 옥지환을 주는 것은 주인공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증표가 제시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학생 3 : 노승이 절도사의 도움을 받아 장경 부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주인공과 그의 가족을 매개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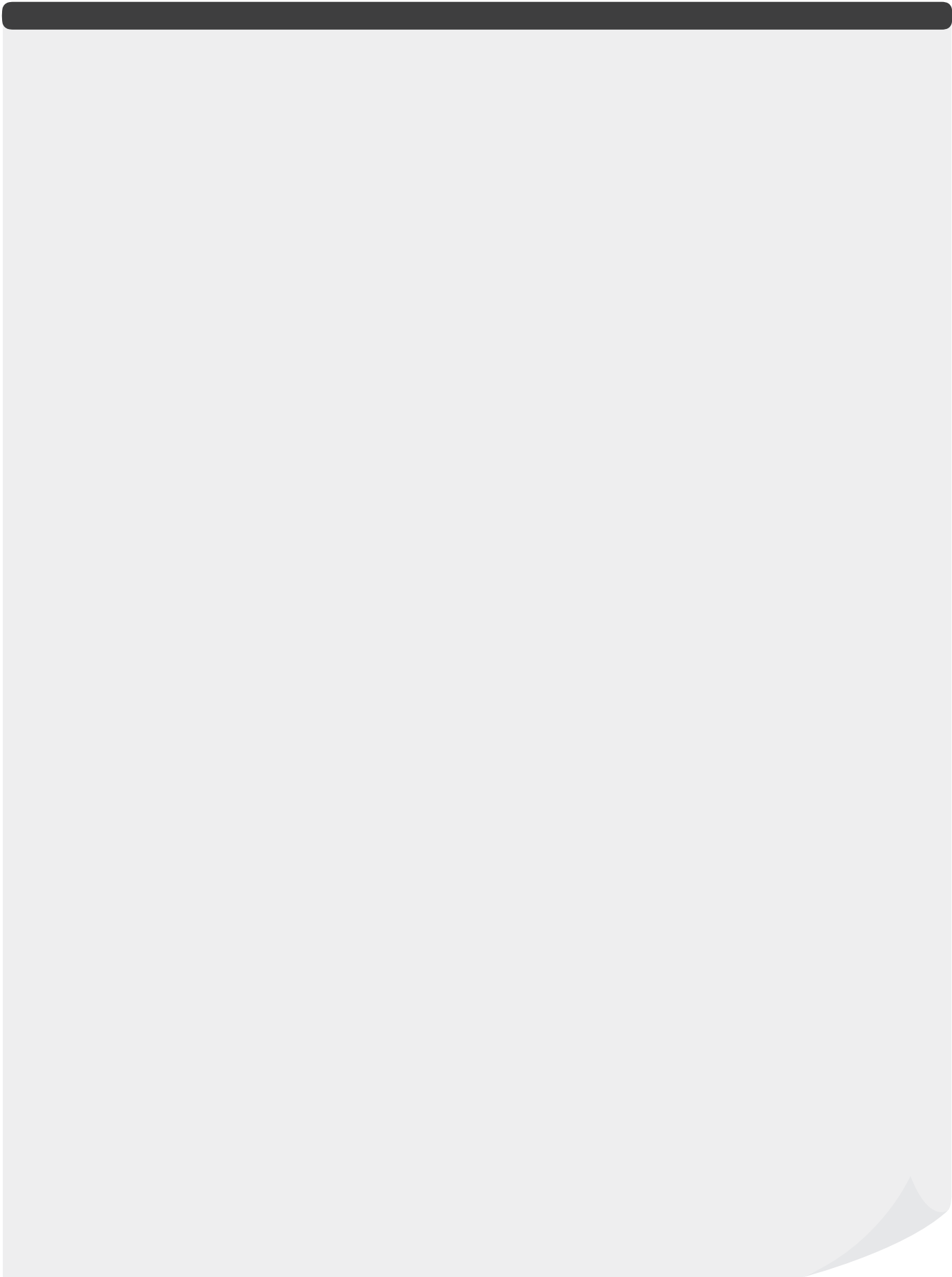
학생 4 : 장경의 아버지가 처자를 잃고 도적의 장수로 있다가 절도에 정속되는 것은 정적과의 대결에서 패함으로써 가문이 몰락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학생 5 : 장경이 떠돌다가 운주 관노 차영을 따라가 사환이 되는 것은 조력자가 주인공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를 구출 후 양육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04 '장경'을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새로운 일을 얻는 공간이고, ㉡은 맡은 일을 인계하는 공간이다.
- ② ㉠은 타인에게 킥박을 당하는 공간이고, ㉡은 그리워하던 이와 상봉하는 공간이다.
- ③ ㉠은 연대의식을 느끼는 공간이고, ㉡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공간이다.
- ④ ㉠은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공간이고, ㉡은 자신을 향한 시기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⑤ ㉠은 타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공간이고, ㉡은 타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공간이다.





[앞부분 줄거리] 백운영은 부친의 귀양지로 향하던 도중,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한다. 이때 도인이 나타나 백운영을 구하고, 백운영은 시비 추향과 함께 도인을 따라 보타산에 이르게 된다.

소저(백운영)가 도인의 **신명(神明)함**을 공경감복하고, 또한 다시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여 일어나 재배(再拜)하여 가로되, “범속한 인간이 존안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밝은 가르침을 받아 아득한 길을 지시하시니, 이제로부터 죽기까지의 삶은 다 사부의 내리심이라. **마음과 때를 찢어 사부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나이다.”

이 때에 배에 있는 여러 사람이 배를 언덕에 대고 오래 소저를 기다리나 돌아오지 아니하거늘, 설부의 노복들이 언덕 위에 올라 찾되, 다만 보이는 것은 일천 봉우리와 일만 봉우리에, 구름이 가득하고 어지러운 돌이 늘어서, 가는 길을 분별치 못하여 서로 돌아보고 놀라며 여러 날 방황하다가 배로 다시 돌아와 또 십여 일을 머무르나 종적이 마침내 아득한지라. 설가의 노복들이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여 다만 남쪽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드디어 여러 사람과 더불어 배를 띄워 돌아오더라.

소저가 도인의 말을 들은 후로부터 자못 스스로 깨달아 암자에서 머물고자 할새, 한 통의 편지를 써 추향으로 하여금 언덕에 이르러 설부의 노복을 보고 잠시 **해운암**에 머무는 뜻으로써 설공에게 돌아가 아뢰라 하니, 추향이 명을 받들고 언덕에 이른즉, 배는 이미 돌아간지라. 추향이 놀라 돌아와 이 뜻으로써 소저에게 고하니, 소저가 슬피 눈물을 흘리더라.

문득 보매 도인이 후원으로부터 이르러 소매 속에서 ① **도서(道書)** 세 권을 내어 소저에게 주어 가로되,

“이것은 천서(天書)라. 천지인(天地人) 세 권으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조화(造化)를 빼앗는 방법과 귀신도 헤아릴 수 없는 기미가 있으니, 주나라의 강자아(姜子牙)와 춘추전국시대의 손무자(孫武子), 귀곡선생(鬼谷先生)과 한나라의 장자방(張子房)과 촉의 제갈무후가 다 이 책을 숙독하였도다. 위로는 태평하게 다스릴 수 있고, 아래로는 난리를 평정할 수 있고, 천지의 변화와 풍운조수와 귀신을 역사(役使)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다 이 책에 있도다. 대저 수행하는 사람은 정직무사(正直無邪)하고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린 연후에 가히 성공할지니, 그대는 이것을 공경하여 받되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지어다.”

소저가 두 손으로 절하고 받아, 이후부터 깊이 후원에 처하

여 전심으로 강습할새, 반년이 못 되어 신기묘전(神機妙詮)을 환히 광통하며 형세가 대를 쪼갬과 같아 해득치 못함이 없으니, 대저 소저가 본래 총명이 절륜하여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한 번 보면 잊지 않아 쉽게 자득하는 연고라. 소저가 천서를 읽은 후부터, 또 선가의 수련하는 방법을 얻어 풍골(風骨)은 더욱 맑고 안색은 더욱 아리따우며, 스스로 청정함을 사랑하여 아무 염려가 없어, 세간의 부귀영욕은 원추(鵠雛)새*가 썩은 쥐 보듯 하더라. 영구히 몸을 산문에 의탁하고 인간 세상에 나오고자 아니하더라.

추향이 울며 간하여 가로되,

“소저가 비록 규중의 한 여자일지라도 **부모의 의탁함과 문호의 부담**이 관계가 매우 중하거늘, 어찌 가히 몸을 산문에 의탁하여 길이 인간사를 하직하리이까? 원컨대 소저는 다시 헤아리소서.”

소저가 탄식하여 가로되,

“내가 네 말의 당연함을 알지 못함은 아니로되, 다만 나의 명도(命途)가 기박하여 인간 세상의 고해(苦海)에 오래 곤뇌하다가 이제 몸을 청정한 곳에 두어 만념을 다 태워버렸거늘, 내가 어찌 다시 연화(煙火)세계를 밝아 세상 인연에 얽힐 바가 되리오? 그러나 마음에 잊지 못할 바는 부모의 은혜니, 바야흐로 이에 마음에 미루어 두고 결정치 못함이다.” 추향이 또한 탄식할 따름이더라.

(중략)

이 때에 백 소저는 해운암에 있는 지 이미 수년을 지낸지라. 도인에게 배운 후로부터 재기가 탁월하고 도술이 고명하니, 진실로 해상신선이요 여중호걸이더라.

하루는 도인이 소저에게 가로되,

“내가 밤에 천문을 보건대, 중국에 일이 많고 또 그대의 액운이 이미 다하였도다. 이제 그대는 빨리 **인간 세상에** 가서 배운 것을 모두 펴고 **힘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여, 위로는 가히 사직(社稷)을 편안히 하고 **난리를 평정**하며, 아래로는 부모의 얼굴을 다시 만날 것이로되, 삼가 부용현의 옛 언약을 저버리지 말지어다.”

소저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여 가로되,

“제자가 사부의 가르쳐 주신 은혜를 입어 도를 배운 지 여러 해에 육근(六根)*이 이미 맑아지고 칠환(七還)*이 장차 이루어지려 하매, 이 산문을 떠나 다시 인간 세상의 괴로움을 밟고자 아니하나이다.”

도인이 책망하여 가로되,

“대저 사람의 한 번 먹고 마심이 다 전정(前定)이 있으니 이는 곧 천수(天數)*라, 가히 도망치 못할 것이라. 그대는 어찌 감히 고집 불통하여 천명을 어기고자 하는가? 다만 이제 길운이 이미 이르렀으니 즉각 떠나고 이곳에 머물지 말지 어다.”

소저가 도인에게 이미 생각이 정해졌음을 알고 지체하지 못하여 마침내 하직하고 산문 밖에 나가, 죽장을 땅에 던지니 화(化)하여 푸른 용이 되는지라, 추향과 같이 타고 갈새, 순식간에 남해를 지나 장안에 이르더라.

— 서유영, 「육미당기」 —

* 원추새 : 중국의 고대 상상의 새. 봉황과 동일시 되기도 함.

* 육근 : 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섯 가지 근원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

* 칠환 : 불교에서 성자가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일곱 가지로 나눈 것

* 천수 : 타고난 수명 혹은 하늘이 정한 운명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시대적 배경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신분과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비유를 활용하여 달관의 경지에 이른 인물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부의 노복들은 사라진 소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소저와 만나지 못했다.
- ② 소저는 설공에게 해운암에 머무르겠다는 뜻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③ 추향은 백 소저가 천서를 읽은 후에 인간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알고 있었다.
- ④ 백 소저는 인간 세상의 일을 해결하기에는 자신의 깨달음이 부족하다며 도인의 권유를 거절하였다.
- ⑤ 백 소저는 도인의 뜻이 완고하여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술을 사용하여 추향과 함께 장안으로 향했다.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 소저가 ㉠을 받고 보인 반응에서, 백 소저가 도인과 ㉠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도인이 백 소저에게 ㉠을 건네는 것에서, 도인이 백 소저의 요청을 승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도인이 ㉠을 건네며 하는 당부에서, ㉠을 익히기 위해 백 소저가 깊은 후원에 처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④ 백 소저가 ㉠을 익힌 후 추향에게 하는 말에서, 백 소저가 인간 세상의 인연을 모두 잊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
- ⑤ 도인이 ㉠을 건네며 하는 말에서, ㉠의 내용이 백 소저가 인간 세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04 <보기>에 따라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육미당기」는 세속 지향과 탈속 지향이라는 상반된 의지의 충돌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러한 두 지향성은 현실의 모순과 무질서의 해결을 통해 하늘의 이치(天理)를 구현하려는 인물과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 삶에 도달하려는 인물의 충돌로 구체화된다. 탈속을 지향하는 인물이 자신에게 부여된 과업을 수용함으로써 세속을 지향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탈속적 공간은 세속적 공간에 반대되는 피난처가 아니라 세속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예비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① 백 소저가 도인의 ‘신명함’을 깨닫고 ‘마음과 때를 씻어 사부의 가르침을 따르고자’하는 데에서,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 삶에 도달하려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② 도인이 백 소저에게 ‘배운 것’을 모두 퍼 ‘난리를 평정’하라고 말하는 데에서, ‘해운암’이 세속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예비적 공간의 성격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어.
- ③ 추향이 ‘부모의 의탁함’과 ‘문호의 부담’을 들어 백 소저를 타이르는 데에서, 현실의 모순과 무질서의 해결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구현하려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④ 백 소저가 ‘천명’을 어기지 말라는 도인의 꾸지람을 듣고 ‘산문 밖’으로 나가는 데에서, 세속 지향과 탈속 지향이라는 상반된 의지의 충돌이 결국 해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 ⑤ 도인이 백 소저에게 ‘인간 세상’에 가서 ‘힘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라고 말하는 데에서, 탈속을 지향하는 인물에게 세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업을 부여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01 ★★☆☆☆

정답 ①

정답 해설

절도사 신담은 자신의 관노인 장취의 부탁에 따라, 원수에게 ‘유서’의 내용을 질문하며 원수가 장취의 아들이 맞는지 따보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② 절도사는 부모를 어릴 적 잃어버렸다는 원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였으나, 그가 잃어버린 부모의 행방을 수소문하지는 않았다. 바로 관노인 장 처사가 자신이 원수의 아버지라고 추측하며, 절도사에게 ‘명일 탐지하며 보’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③ 절도사가 관노에게 그의 집안 내력을 물은 것이 아니라, 관노가 먼저 나서서 자신의 집안 내력을 밝혔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④ 절도사는 원수의 꿈 이야기를 듣고 “몽사가 여차하니 금일 경사(慶事)가 있으리라.”라고 말했으며, 그에게 매사에 조심할 것을 당부하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슬픈 마음을 억제하여, 노부(老父)의 심회(心懷)를 위로하라.”는 장 처사가 한 말이며 절도사가 한 말이 아니므로, 원수에게 슬픈 마음을 억제하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02 ★★☆☆☆

정답 ⑤

정답 해설

장 처사는 자신이 ‘당돌히 입을 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러한 소극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명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장 처사는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잃어버렸으며, 어떤 이유로 몰락하여 관노의 처지가 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장 처사는 절도사에게 “소인을 위하여 명일 탐지하여 보소서.”라며 절도사에게 원수가 자신의 아들이 맞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장 처사는 “소인의 잃은 자식 같사오되.”와 같은 추측의 진술을 활용하여 원수와 자신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④ 현재 관노 신분인 장 처사는 절도사 신담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인은 본디 공렬 후 장진의 후예로”와 같이 자신의 원래 출신을 언급하며 정체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03 ★★★★★

정답 ③

정답 해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이 이별한 가족과 재회할 때에는 주인공과 가족을 매개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때 노승은 장경에게 부모를 만날 장소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주인공과 그 가족을 매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승이 절도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은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은 가족과 이별하는 수난을 겪지만 입신양명 후 가족과 재회한다. 따라서 윗글에서 원수가 된 장경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입신양명한 주인공이 이별한 가족과 재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전형적인 영웅 소설에서 주인공이 헤어진 가족과 재회할 때, 주인공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증표가 제시된다. 윗글에서 ‘유서’는 장경의 부친이, ‘옥지환’은 장경의 모친이 남긴 것으로, 그가 장 처사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증표로 볼 수 있다.
- ④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은 정적과의 대결에서 패함으로써 가문이 몰락하는 수난을 겪는다. 그런데 윗글에 따르면, 장경의 집안은 정적과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몰락하는 것이 아니다. 장 처사는 ‘유간의 난’으로 인해 피난하다가 유간의 부하로 장수가 되고, 그 죄로 절도에 정속되어 절도사의 관노가 된다. 장 처사의 정적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장 처사가 난에 휩쓸린 일 때문에 집안이 몰락한다는 점에서, 윗글은 정적과의 대결에서 패하여 가문이 몰락하는 일반적 영웅 소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은 가족과 이별하는 수난을 겪은 후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 조력자에게 구출 후 양육된다. 그런데 유리결식하던 장경을 데려가는 운주 관노 차영은 장경의 비범함을 알아보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하던 사환 노릇을 대신하게 만들기 위해 장경을 데려간다. 차영이 장경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다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정답 해설

㉠에서 장경은 '동료 방자들의 구박이 심하더라'라는 구절을 통해 다른 동료 방자들에게 구박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을 타인에게 핍박을 당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에서 장경은 아버지와 재회하고 있으므로, ㉡은 그리워하던 이와 상봉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은 장경이 사한 일을 하게 되는 공간이지만, ㉡에서 장경이 맡은 일을 남에게 인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③ ㉠에서 장경은 동료 방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으므로, ㉡을 연대의식을 느끼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에서 '부모생사를 모르'던 장경이 몽사를 통해 부친과 만날 것을 알고, 실제로 장취와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④ ㉠에서 '차영이 무상하여 머리도 아니 빗기고 옷도 변변히 입히지 아니 하니'라는 구절을 통해 ㉡을 장경이 자신을 데려간 차영에게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또 ㉡에서 장경이 자신을 향한 시기를 확인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에서 장경은 본래 사환이었던 차영의 아들 역할을 대신하여 방자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을 타인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에서 장경이 타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해설

윗글에서는 도인으로부터 받은 천서를 읽고 달관의 경지에 오른 소저의 상태를 '세간의 부귀영욕은 원추새가 썩은 쥐 보듯 하더라'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윗글에서 시대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주재소, 순사' 등을 통해 일제 시대를,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산업화 시대를 나타내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야 한다.
- ② 윗글에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도인에게 배운 후로부터 재기가 탁월하고 도술이 고명하니, 진실로 해상신선이요 여중호걸이더라.'라는 서술을 통해 서술자가 개입하여 백 소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제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풍골은 더욱 맑고 안색은 더욱 아리따우며'에서 외양 묘사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천서를 읽은 후 소저에게 긍정적 변화가 생겼음을 나타낼 뿐이다. 이를 통해 소저의 신분과 성격을 알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⑤ '다만 보이는 것은 일천 봉우리와 일만 봉우리에, 구름이 가득하고 어지러운 돌이 늘어서'를 공간적 배경의 묘사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단순히 설부의 노복들이 백 소저를 찾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뿐이다.

정답 해설

소저는 자신에게 인간 세상으로 향하라는 도인의 말에, '제자가 사부의 가르쳐 주신 은혜를 입어 도를 배운 지 여러 해에 육근(六根)이 이미 맑아지고 칠환(七還)이 장차 이루어지려 하매, 이 산문을 떠나 다시 인간 세상의 괴로움을 밟고자 아니하나이다.'라고 답한다. 여기서 소저가 인간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자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 세상의 일을 해결하기에는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세

상의 괴로움을 밟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간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설부의 노복들은 오랫동안 소저를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아 소저를 찾아 나서고, 소저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다시 배로 돌아와 십여 일을 머무른 후, 그래도 소저가 돌아오지 않자 통곡하다가 배를 띄워 돌아갔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한 통의 편지를 써 추향으로 하여금 언덕에 이르러 설부의 노복을 보고 잠시 해운암에 머무는 뜻으로써 설공에게 돌아가 아뢰라 하니, 추향이 명을 받들고 언덕에 이른즉, 배는 이미 돌아간지라.'에서 소저가 설공에게 해운암에 머무르겠다는 뜻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배가 떠나 그 뜻을 전하는 데 실패하였다.
- ③ 추향이 '소저가 비록 규중의 한 여자일지라도 부모의 의탁함과 문호의 부담이 관계가 매우 중하거늘, 어찌 가히 몸을 산문에 의탁하여 길이 인간사를 하직하리이까? 원컨대 소저는 다시 헤아리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그녀는 백 소저가 천서를 읽은 후에 인간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소저가 도인에게 이미 생각이 정해졌음을 알고 지체하지 못하여 마침내 하직하고 산문 밖에 나가, 죽장을 땅에 던지니 화하여 푸른 웅이 되는지라, 추향과 같이 타고 갈새, 순식간에 남해를 지나 장안에 이르더라.'에서 백 소저가 도인의 완고한 뜻을 꺾을 수 없기에 도술을 사용하여 추향과 장안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03 ★★★★★

정답 ④

정답 해설

도인으로부터 받은 ①을 익힌 후 백 소저는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추향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마음에 잊지 못할 바는 부모의 은혜니, 바야흐로 이에 마음에 미루어 두고 결정치 못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저가 인간 세상에서의 인연 중 부모와의 인연을 아직 마음에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저가 인간 세상에서의 인연을 모두 잊어버렸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① 백 소저는 도인이 건넨 ①을 '두 손으로 절하고 받아, 이후부터 깊이 후원에 처하여 전심으로 강습'하였다. 이는 백 소저가 도인과 ①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그녀가 그 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예를 차리는 태도를 보이지도, 전심으로 책을 익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 ② '마음과 때를 씻어 사부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나이다'와 '소저가 도인의 말을 들은 후로부터 자못 스스로 깨달아 암자에서 머물고자 할새'를 통해 소저는 도인을 따라 해운암에 머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인이 백 소저에게 ①을 건네며 '공경하여 받되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은, 백 소저가 해운암에 머물며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것에 대한 그의 승낙으로 볼 수 있다.
- ③ 도인은 백 소저에게 ①을 건네면서 '대저 수행하는 사람은 정직무사(正直無邪)하고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린 연후에 가히 성공할지니, 그대는 이것을 공경하여 받되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지어다.'라고 당부한다. 백 소저가 세상에 나가지 않고 깊은 후원에 처한 이유는 '정직무사'하고 '육체의 욕심을 끊어' 버림으로써 '천서'를 익혀 수행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 ⑤ 도인이 ①을 건네며 '주나라의 강자아(姜子牙)와 춘추전국시대의 손무자(孫武子), 귀곡선생(鬼谷先生)과 한나라의 장자방(張子房)과 촉의 제갈무후가 다 이 책을 숙독하였도다.'와 '위로는 태평하게 다스릴 수 있고, 아래로는 난리를 평정할 수 있고'라고 말한 것에서 ①이 인간 세상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04 ★★★★★

정답 ③

정답 해설

추향이 '부모의 의탁함'과 '문호의 부담'을 들어 백 소저에게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는 것은, 백 소저가 천서를 읽고 영구히 산문에 의탁하고자 함을 추향이 눈치채고 이를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 추향이 '현실의 모순과 무질서의 해결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구현하고자'하는 인물임을 추론해낼 수는 없다. 문호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추향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집안의 지위를 중시할 뿐이다. 그보다는 윗글의 종락 이후 도인이 백 소저에게 밖으로 나가 인간 세상의 난리를 평정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보기>에서 말하는 '현실의 모순과 무질서의 해결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구현하려는 인물'은 도인과 가장 가깝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백 소저는 도인의 신명함에 공경감복하고 '마음과 때를 씻어 사부의 가르침을 따르고자'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 삶에 도달하려는 인물'로서의 백 소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도인은 중국에 일이 많으니 백 소저에게 인간 세상에 가서 배운 것을

모두 펴고, 사직을 편안히 하고 난리를 평정하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백 소저가 그동안 머문 해운암은 세속적 공간에 반대되는 피난처가 아니라, 그녀가 세속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예비적 공간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④ 도인은 인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자 하는 백 소저를 책망하며, 그녀가 세속에서 이뤄야 할 과업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백 소저가 도인의 말을 듣고 결국 '산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탈속 지향적인 인물인 백 소저가 도인의 말에 따라 세속으로 향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는 백 소저가 자신의 과업을 수용함으로써 세속 지향과 탈속 지향이라는 상반된 의지의 충돌이 해결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도인은 산문에 머무르고자 하는 소저에게 '인간 세상'으로 가 '힘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인이 탈속을 지향하는 인물인 백 소저에게 세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업을 부여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PART 02
고전소설

04. 창선감의록

page. 44

01 ★★☆☆☆

정답 ③

정답 해설

화진은 심 씨, 화춘과의 대화를 나눈 후 화 부인과 대화를 나누려 했으나 '몇 마디 말을 겨우 나누었을 때' 창두로부터 '서 각로와 하 상서 그리고 여러 재상'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이에 화진이 '외당'으로 나가 이들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심 씨는 창두를 통하여 화진이 '화부'에 도착하여 '석고대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창두를 통하여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냄으로서 형옥에게 진심을 보여야 할 것 같구나."라는 자신의 의중을 화진에게 전달한 결과 화진이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석고대죄 중인 화진과 화부 안에 있는 심 씨의 소통은 창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심 씨가 화진을 데려오기 위해 직접 화부 밖으로 나서지는 않았고 화진 또한 스스로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② 화진은 '문목'의 내용을 통해 고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신문하는 최 지부에게 "진실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가 이미 드러났으니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라고 말하며 무고를 자복한 결과, 옥에 갇히게 되었다. 따라서 화진이 최 지부의 신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옥에 갇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상대의 초췌해진 모습에 상심하여 울음을 터뜨리는 인물은 화춘이 아닌 화진으로, '원수는 초췌하게 바뀐 그의 모습을 보고 깊이 상심하여 목 놓아 슬프게 울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최 지부는 화진의 처벌을 요구하며 자신에게 항의하는 범한을 제지하고 있다. 이때 최 지부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화씨 집안'과 무관한 그가 화진의 일에 개입하여 화진을 무고(誣告)하려는 것에 분노하여 그를 밖으로 내보냈다고 볼 수 있다.

02 ★★☆☆☆

정답 ③

정답 해설

[A]에서 비유적 진술은 '봉두난발에 귀신같은 형상'에 쓰였는데, 이는 고초를 겪은 화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종락 부분 줄거리의 내